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강원훈



장성 반정모



장흥 김정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순천시, '정유재란 역사탐방' 각광

(사)정유재란 역사연구회(회장 임동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598년 정유재란 말기 광양민과 연결한 순천왜성을 두고 해룡면 신성포 일원에서 조·명·일 동북아 3국의 육·해상군이 2개월에 걸쳐 싸운 국제전쟁의 격전지로써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종식시켰던 '왜교성 전투와 광양만 해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이충무공의 숨은 업적을 발굴하여 지역의 올바른 역사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취지에서 개설했다.

지난달 29일 순천시 사회복자협회(회장 김정오) 회원 40명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순천금당중학교(교장 양기권) 학생 40명이 총 7시간에 걸쳐 140km를 탐사하면서 420년 전에 일어났던 정유재란을 되새기며 호국정

총 7회 걸쳐 왜성·장도 등 전적지 탐방 지역의 올바른 역사 알리기 위해 개설



신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금당중 김 모 군은 "현장탐방을 통해 우리 지방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됐다. 앞으로 잘 알려지지 않

은 왜성과 장도 등 전적지도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유재란 역사연구회 임동규 회장은 "보이지 않는 역사는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잊혀지기 마련이다. 정유재란의 역사 재조명을 통해 한·중·일 3국의 격전지를 정유재란 역사공원이나 동북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명분과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공론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지방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정유재란 역사탐방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탐방프로그램은 총 7회에 걸쳐 순천시역내비문 지휘관, 순천시 산하 해설사, 순천시 노인심리상담사협회 등 300명을 대상으로 광양만 전적지를 역사탐방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해 참여자 공모 계획도 갖고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상공회의소 신축회관 기공식 개최

지상 6층 규모 내년 1월 완공



순천상공회의소(회장 김중욱)는 13일 순천시 장전동에서 신축회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총훈 순천시장, 박진성 순천대학교 총장 권오봉 광양민권경제자유구역역총장, 문찬석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손도중 순천세무서장과 유관기관, 순도중 순천세무서장과 유관기관, 순천상의 명예회장과 고문, 기업인,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중욱 순천상의 회장은 "45년 만에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인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으로 기업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상의 회관 신축을 계기로 상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

됨으로써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총훈 순천시장은 "미래 시정사 건립과 발맞춘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기공식은 순천시와 상공회의소의 비전과 시대정신이 일치된 뜻깊은 행사"라며 "신축회관이 순천 상공인들의 전당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센터로 자리 매김하도록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상공회의소 신축회관은 연면적 2,505.92㎡규모의 지상 6층 건물로 오는 2018년 1월 완공될 예정이며 1층에 국민은행 순천지점의 입점이 확정되었다.

한편 순천상공회의소는 신축회관에 지역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을 유치하여 전남동부지역의 종합경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일자리사업의 확대 시행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남동 부회본부장=김승호 기자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공동 청원문 전달

국회 방문 공동·중점추진사업 국정과제 반영 요청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3개시 시장(주철현·조총훈·정현복)이 11일 국회를 방문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공동 청원문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공동청원문은 지난 5월에 개최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제26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3개시 공동건의사항 7건과 시별 국정과제 건의사항 16건 등 총 23건의 건의사항이 담겨 있다. 이날 3개시 시장은 이개호 위원장, 김태년 의장과 오찬을 나누며 3

개시 행정협의회 청원문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순천시가 대신공약으로 건의한 해룡신단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조성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3개시 행정협의회에서 공동건의한 남해고속도로 신형개량(이설), 수도권 고속철도(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확대 등 7건의 상생협력사

업들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의 생태·해양관광 거점 육성 및 남해안의 다양한 역사자원을 활용한 호국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제발전계획에 2개 사업을 반영해 줄 것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전남동 부회본부장=김승호 기자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명품 숲 '우뚝'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을 찾는 탐방객이 갈수록 늘면서 산림치유와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대표 치유의 숲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화순군이 118여원을 들여 120h에 만 6년간 조성한 만연산 치유의 숲이 12일 공식 개장하면서 탐방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만연산 치유의 숲은 전남도에 조성중인 8개의 치유의 숲 중에서 우리 고유 수종인 소나무, 참나무 등을 주 수종으로 하는 천연림에 조성된 치유의 숲으로는 도내에서 첫 번째 치유의 숲이다.

특히 광주근교 등 도시권에서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형 치유 숲으로서 누구나 쉽게 숲에 접근해 오감을 느끼며 건강증진, 정신수양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사업 초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경사도 9%이하의 무계단 숲길인 오감연결길 3.1km를 비롯해 숲에서 생태계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치유숲길 3.3km, 건강명상숲, 동구리 호수공원 등을 조성했다.

2015년부터는 치유의 숲 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등 2017년 6월까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처리 추가 모집

광양시는 주택과 부속건물 슬레이트지붕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양을 무산마을 새뜰사업 물량(29동)과 올해 지원 대상자 중 사업포기나 결격사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자로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가구 당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물량은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사전조사하고 철거일정을 협의 후 추진하게 된다.

슬레이트 주택은 한국석면안전협회를 통해 철거와 처리가 진행된다. 다만, 철거 후 지붕개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광진 환경정책팀장은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만큼, 본인과 가족과 주변인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슬레이트 지붕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나주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21일 개장

내달 2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개장 오후 5시 마감

매년 지역민과 관광객의 무더위를 식혀주는 나주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 올해도 여름방학 시즌에 맞춰 오는 21일 문을 열고, 내달 20일까지 피서객을 맞이한다.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 지락 약 1만㎡ 부지에 조성된 생태 물놀이장은 산 정상에서 계곡을 따라 흘러 오는 물을 물놀이장에 공급하는 자연 친화적 물놀이 시설로, 이용객 연대를 고려한 3개의 풀장을 비롯해, 데크와 다양한 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간 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100여 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과 샤워장·화장실 등을 갖추었으며, 민간의 사고에 대비 안전요원 배치,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뭄의 영향으로 간헐적인 휴장이 불가피했으나, 작년부터 상수도 시설을 보완해 원활한 물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써 보다 청결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